



무사증 입국 불법취업 브로커 활개

경찰, 도외이탈 시도자 등 잇따라 검거... 외국인 취업실태 조사 착수

불체자 4년세 세검질 ↑
올 2월 현재 1만3766명
임금 중 보다 최대 10배

제주지역 불법체류자가 1만3000명을 넘어지면서 이들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법당국은 이러한 브로커 행위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주요인으로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직업안정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37)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구속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인 불법체류자 6명을 상대로 적게는 29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을 받고 서귀포지역 마늘농가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을 받은 뒤 도외로 이탈시키려 한 한국인 M(39)씨와 중국인 불법체류자 쉬모(30·여)씨 등 4명이 제주해경에 붙잡혀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울러 지난 1일에는 중국인 4명에게 20만~50만원을 받고 서귀포시 표선면 감골농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 중국인 지모(37)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당시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행위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에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보다 '임금'이다. 중국의 경우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최대 10배 가까이 임금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도 최근 도내 산업별·업종별 불법체류자 취업실태와 인력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김형년 제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제주에서 취업을 빌미로 브로커가 난립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범죄조직으로 발전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수사를 진행함은 물론 출입국·외국인청과의 공조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도 최근 도내 산업별·업종별 불법체류자 취업실태와 인력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도내 불법체류자는 2015년 4913명에서 2019년 2월 기준 1만3766명으로 180% 이상 급증했다. 숨은범죄자



'라운프라이빗타운' 회원들이 22일 제주시청을 방문해 관리업체인 라온레저개발의 관광사업자 등록취소를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라운프라이빗 회원-회사측 갈등 고조

제주시 한림읍에 934세대 규모로 조성된 휴양형 콘도 '라운프라이빗타운' 회원들이 22일 제주시청을 방문해 관리업체인 라온레저개발(이하 라온)의 관광사업자 등록취소를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전체 934세대 가운데 100여세대로 구성된 회원 측은 이날 제주시청

자살을 찾아 "라운 측은 세대당 1년 360만원이던 공동관리비를 협의도 없이 올해부터 390만원으로 인상했다"며 "더군다나 적법한 회원 대표 기구가 구성됐음에도, 자신들이 내 세운 기구를 회원대표기구라 칭하며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라온 측은 "일부 회원들이 2011년에 책정된 관리비를 2019년에도 같은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물가상승, 인건비증가, 회원해택 증가 등으로 관리비 인상요인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일방적으로 회사를 비방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회원 측이 제시한 문제 대부분이 불기소 처리돼 법률적 문제가 없어 행정에서도 개입이 어렵다"며 "사업자와 회원간 갈등 해결을 위해 중재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민간위탁 중단하고 직접 운영·고용하라"

제주지역 노동·시민·농민·정당단체가 제주도에 필수 공공사업에 대한 직접운영·고용을 촉구했다.

교통수단에 대해 제주도청이 직접운영하라"고 요구했다.



도내 14개 시민단체는 2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복 소각장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제주도청이 직접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전기차-트럭 충돌 '전소' 소방서 추산 7224만원 피해

지난 21일 오후 9시23분쯤 제주시에월읍 고성리 평화로에서 이모(35)씨가 운전하던 코나 전기차가 전방에 세워져 있던 포터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 내년 '무상 교복' 시대 연다

도교육청 중·고교 신입생 현물지원 확정 지원대상 1만4000여명... 예산 43억원 소요

교복비 35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총 6420명으로 6월 말까지 학부모 계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방 흡입 시술을 받던 환자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40대 의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지방흡입수술 중 전치 4주... 의사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정의학과 전문의 A(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씨를 다칠 가능성을 알면서도 시술에 동의했다"고 항변했다.

감귤 신상품분양
2019년 봄 출하 예정 묘목 분양 접수 중

만감류
레드향(무독) · 천혜향(무독)
한리봉 · 황금향 · 레몬
아마나스 · 망유자

조 생
유리실생 · 궁천(궁천번이지)
하례 조생

농장위치 :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귀포유수소에서 모슬포방향 300m 위치)

종자업 등록번호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010-3055-1885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리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 · 레몬 · 영굴
- 한리봉 · 히로시마7호
- 블러드 오렌지(다로코)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당도 16브릭스 이상)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와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 | |
|---------------------------|-----------|
| * 유리실생 1년생 | * 황금향 3년생 |
| * 유리조생 (감귤박람회 최우수 감귤) 7년생 | |
| * 궁천 (궁천번이지) 1,2,5년생 | |
|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
| * 레드향(무독) 천혜향(무독) 1,2,3년생 | |
| * 고림 남진해 수루미 레몬 2년생 | |
| * 한리봉 6년생 * 하례조생 1년생 | |
| * 자갈(돌맹이) 필요하신분 연락요 | |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방수

- 폴리우레아방수 -

- ◆ 지붕,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 ◆ 축사, 냉동창고, 양식장, 수영장 방수
- ◆ 저수조, 하수처리장 내·외벽 방수
- ◆ 물탱크, 원유저장탱크, 주유소 바닥 코팅
- ◆ 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강관 코팅
- ◆ 철재 부식 코팅, 아파트 주차장 바닥
- ◆ 산업용시설물, 발전소, 학교, 관공서 옥상
- ◆ 구조물의 모든 부위 방수, 콘크리트 부식 방지
- ◆ SMC, FRP 물탱크 제작, 수리

A/S기간 : 3년 보장

주식회사 내소날건업
내 소 날 FRP 페인트 총판
- 방수, 도장 전문건설업, 여성기업 -
TEL : 064-727-9800 H,P : 010-3699-4850
FAX : 064-753-8850 010-3211-0218
national90@naver.com